# 희귀철새 "신안이 좋아"

## 2000년 이후 국내 미기록 조류 43.5% 발견

지난 2000년 이후 관찰된 국내 미기록 조류 중 43.5%가 전남 도서지역에서 발견된 것으로 나타나 전남이 희귀 철새의 보고(寶庫)임이 재확인됐다.

특히 태풍 등 기상의 영향과 기후변화로 인해 철새들의 이동시기와 양상 등 '조류(鳥類)지도'가 크게 바뀌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7일 국립공원연구원 철새연구센터는 "2000년 이후 국내에서 미기록 조류 69종이 관찰됐으며 이 가운데 43.5%인 30종이 전남지역에서 발견됐다"고 밝혔다.

전남에서 발견된 미기록 조류는 모두 신안군 관내에서 관찰돼 신안군이 희귀철새의 메카로 부상하고 있다. 발견지역과 조류 종류는 ▲흑산도·홍도 15종(집참새, 귤빛지빠귀 등) ▲가거도 12종(파랑딱새, 나무밭종다리, 검은머리멧새 등) ▲우이도 1종(흰배줄무늬수리) ▲비금면 해상 1종(좀도둑갈매기) 등이다.

또 관찰된 미기록 조류 대부분을 소형 참새목(59%)이 차지했으며 도요목(18%), 매목(10%), 두견이목(4%), 기러기목(3%)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해안에서 전체의 76.8%(53종)가 발견됐는데 이는 철새들이 한반도 내륙을 통과하지 않고 서해안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으로 보인다.

특히 미기록 조류가 발견된 원인을 조사한 결과 태풍 등 기상 영향(48%), 서식지역 확대(29%), 지구온난화(16%), 원인 미상(7%) 등으로 나타나 기후변화가 조류분포 변화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태풍이나 폭풍 등으로 인해 길을 잃은 철새나 겨울철이 되면 월동

왼쪽부터 귤빛지빠귀, 집참새, 나무밭종다리.
〈국립공원관리공단 제공〉

지로 가는 철새들이 따뜻한 날씨 때문에 이동을 하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 철새 이동시기인 5월과 10월에 각각 18종과 11종이 관찰돼 미기록 조류의 발견과 철새이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일부 종은 지구 온난화로 인해 서식지역을 북쪽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빙기창 철새연구센터 연구원은 "미기록 조류의 대부분인 93%는 지구온난화의 직·간접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미기록 조류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철새의 도래시기와 기후변화, 이동 패턴 변화 및 기후변화와의 관계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를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 학교별 학업성취도 2010년부터 공개

## 서열화 논란 재점화

3등급으로 나뉜 초·중·고교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오는 2010년부터 각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돼 학교 서열화 논란이 재연될 것으로 보인다.

또 올 12월부터는 초·중·고의 폭력 발생과 급식 현황, 대학교의 취업률, 연구실적, 신입생 충원 현황 등도 공시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교육관련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안)'을 발표하고 8일부터 의견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공개 범위에 대해 논란이 있어왔던 공개대상 시험은 매년 10월 초등학교 6학년, 중학교 3학년, 고교 1학년이 국어·영어·수학·과학·사회 등 5과목을 치르는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만으로 제한된다.

평가 결과는 ▲우수학력(80% 이상) ▲보통학력(80% 미만~50% 이상) ▲기초학력(50% 미만~20% 이상) ▲기초학력 미달(20% 미만) 등 4등급으로 구분되지만 서열화 논란을 없애기 위해 ▲보통학력 이상 ▲기초학력 ▲기초학력 미달 등 3등급만 공개키로 했다. 그러나 3등급 공개 역시 학교간·지역간 학력차를 드러낼 수 밖에 없어 서열화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자료의 공시기간은 3년이며, 이 밖에 초·중·고교의 교원연수 참여현황, 학업성취도 전년대비 향상도 등 대학의 위부평가·인증기관의 평가·인증결과 등이 공개 대상에 포함됐다.

/정상필기자 camus@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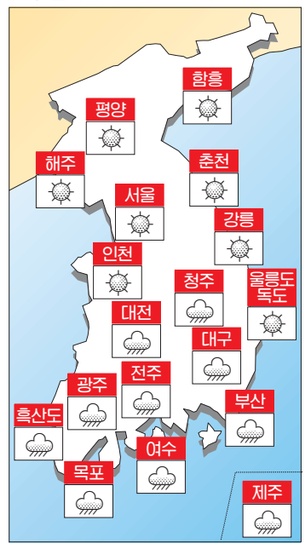
## 폭염 속 '말복'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으며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8월 8일 (음 7월 8일) 날씨

◇전국날씨

| | | |
|---|---|---|
| 광 주 | 오후 한 때 비 | 24~33℃ |
| 목 포 | 오후 한 때 비 | 24~30℃ |
| 여 수 | 오후 한 때 비 | 24~29℃ |
| 완 도 | 오후 한 때 비 | 23~31℃ |
| 구 례 | 오후 한 때 비 | 22~34℃ |
| 해 남 | 오후 한 때 비 | 23~31℃ |
| 장 흥 | 오후 한 때 비 | 22~31℃ |
| 고 흥 | 오후 한 때 비 | 22~31℃ |
| 순 천 | 오후 한 때 비 | 21~33℃ |
| 영 광 | 오후 한 때 비 | 23~31℃ |
| 진 도 | 오후 한 때 비 | 22~32℃ |
| 전 주 | 오후 한 때 비 | 23~33℃ |
| 남 원 | 오후 한 때 비 | 22~32℃ |
| 흑산도 | 오후 한 때 비 | 21~27℃ |




서해남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0.5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남해서부
앞바다=북동~남동풍 파고 0.5~1.0m
먼바다=북동~남동풍 파고 1.5~2.5m

목포 밀물〈 06:19 19:10 썰물〈 11:37 --:--
여수 밀물〈 00:36 13:27 썰물〈 06:45 19:25

▲해뜸 05:47 ▲해짐 19:29 ▲달뜸 12:38 ▲달짐 22:57

◇주간날씨 기상안내전화 : 국번없이 131 〈광주지방기상청〉

| 날 짜 | 9(토) | 10(일) | 11(월) | 12(화) | 13(수) | 14(목) |
|---|---|---|---|---|---|---|
| 날 씨 | | | | | | |
| 최저/최고 | 24/32 | 24/33 | 24/33 | 25/34 | 25/33 | 24/32 |

# 폭염주의보 당분간 계속

광주·전남지역에 지난 4일부터 이어지고 있는 폭염주의보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8일과 9일에는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폭염특보 해제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지방기상청은 "금요일(8일)과 주말(9일)은 고기압 가장자리에 들어서 구름이 많이 끼겠고, 오후부터 적은 비가 내리겠다"며 "남해안 지역을 중심으로 천둥·번개가 치는 곳도 있겠지만 일부 지역에 열대야 현상이 나타나겠다"고 예보했다.

8일 예상 강수량은 5~10㎜. 8일 아침 최저기온은 21~24도, 낮 최고기온은 30~34도로 예상됐다.

한편, 입추(立秋)였던 7일 광주·전남지역은 폭염주의보로 인해 무더운 날씨를 보였다. 이날 광주시와 나주·담양·곡성·구례 등 전남 11개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으며, 화순 36.7도를 최고로 함평 35.5도, 구례 34.9도, 광주 33.2도를 각각 기록했다.

/강필상기자 kps@kwangju.co.kr

지난 1965년 건립된 광주 최초의 돔형 실내종합체육관인 남구 구동체육관이 최근 해체돼 43년의 역사를 마감했다. 철거 이전(왼쪽)과 이후의 모습.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 구동체육관 43년 역사 마감

## 실내 스포츠 산실…건물 해체 작업
## 2010년 문화커뮤니티센터 들어서

광주 최초의 실내종합체육관인 구동체육관이 43년 역사를 마감했다.

7일 광주시에 따르면 구동체육관 부지에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를 신축하기 위해 지난달말 체육관 건물 돔형지붕 철거작업에 이어 전체 건물 해체 마무리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광주시 남구 구동에 있는 구동체육관은 광주에서 열린 제46회 전국체전 스포츠 인프라 구축차원에서 건립이 추진돼 1965년 문을 열었다. 당시 구동체육관은 이 지역에 첫선을 보인 돔형지붕 건축물로 눈길을 끌었다. 좌석수는 2천200석, 최대 수용인원은 3천100명이었다.

개관 당시 구동체육관은 농구와 배구, 유도, 검도, 배드민턴 등 실내 경기 전종목을 치를 수 있는 이 지역 유일의 실내 경기장으로 거의 일년 내내 경기가 열렸다고 한다.

광주·전남에서 열린 6차례 전국체전의 주 경기장으로 사용돼온 것은 물론 지역 대표 선수들의 연습장으로 활용되는 등 광주·전남 실내 스포츠의 산실로 통했다. 당시 학생이었던 지금의 중장년층이 실내 스포츠를 관람할 수 있는 유일한 공간이기도 했다.

체육계 인사들의 전언에 따르면 워낙 많은 경기가 열리다 보니 이 지역 실내 종목 선수들은 구동체육관 코트에서 연습 한 번 해보는 게 소원이었다. 당시 수많은 선수단과 임원 등을 겨냥해 구동 일대에 음식점이 들어서기 시작해 탄생한 곳이 구동 '돼지국밥집' 골목이다.

그러나 건물이 노후화한 데다 지난 1987년 염주종합체육관이 개관하면서부터 활용도가 떨어져 대표적인 실내종합경기장으로서 위상을 상실했다. 이에 따라 정당행사, 다중집회 장소 등으로 사용돼오다 지난해 열린 전국체전 농구 경기장으로 사용된 것을 끝으로 공식적인 체육시설로서 수명을 다했다.

한편 광주는시 오는 9월께 '빛고을 문화커뮤니티센터' 공사에 들어간 뒤 2010년 2월 개관할 예정이다. 이 센터에는 공연장과 세미나, 문화복지 공간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 광복절 '100회 촛불집회'

## 이후 생활밀착형 전환

광우병국민대책회의가 오는 15일 광복절을 맞아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반대하는 '100회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이후에는 '생활밀착형 촛불'로 전환을 모색키로 했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도 광복절 당일 1천여명의 회원들과 함께 상경해 '100회 촛불집회'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광우병국민대책회의 관계자는 7일 "100회를 맞는 광복절 촛불집회가 대규모로 열릴 수 있도록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말했다.

이번 서울 광복절 집회는 지방 시민사회단체들과의 연계해 동시다발적으로 전개될 예정이어서 상당한 규모가 될 전망이다.

그러나 광주 촛불집회는 서울보다 이틀이 모자라 앞으로 촛불집회가 지속된다면 오는 17일(일요일) 100회를 맞게 된다.

광주·전남 비상시국회의 관계자는 "오는 15일 서울 촛불집회에 역량을 집중하는 만큼 자체 100회 행사 개최 여부를 결정하지는 하지 않았지만, 앞으로 논의해 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광주의 경우 지난달 말부터 이미 동 단위 소규모 촛불집회를 개최하고, 미국산 쇠고기 불매운동 등의 소비자운동에 동참하는 '생활밀착형' 촛불집회를 진행해오고 있다.

/안현주기자 ahj@kwangju.co.kr·연합뉴스

## '을지연습' 재난 대비 훈련으로

국가 비상사태에 대처하기 위해 매년 한차례 열리는 '을지연습'이 오는 18~21일 재난에 대비한 종합훈련으로 실시된다.

행정안전부는 올해 '을지연습'을 18~21일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중점관리 지정업체가 참가한 가운데 전시와 평상시를 연계한 국가 위기관리 종합연습으로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광주시는 오는 20일 오후 2시 무등경기장에서, 전남도는 무안국제공항에서 각각 테러대비 방호훈련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정후식기자 who@